

안녕하세요 김경자입니다.

4년전 선거를 준비하면서 쓴 '출마 포부서'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. 활발하게 발로 뛰며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당시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며 그 동안 전무이사로서 과연 잘 해왔는지 지금의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첫 번째 전무이사의 임기를 시작했을 때의 저는 자신감과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임기를 마친 지금의 저는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던 초심과 더불어 '어떻게'라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하여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와 회원, 스폰서, 사무국 등에 가고 역할을 하며 문제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더해져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

1978년 창립 이래 협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. 이에 임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. 지난 8년간의 임기를 통해 저는 협회 임원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그 무게와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임원은 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발을 맞출 수 있고, 고민 할 수 있어야 하며 작은 결정 하나에도 회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늘 중립을 지키되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존경하는 회원 여러분!

저는 지난 임기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하여 좋은 임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. 저의 소중한 경험이 빛을 발 할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

협회는 지난 40주년 창립기념일에 글로벌 멤버원 투어를 표방하였습니다. 제게 다시 임기가 주어진다면 협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발 맞추고 회원들과 스폰서 관계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투어환경 개선과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선진시스템 도입에 힘쓰고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부 투어의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려

고 합니다. 회원들의 교육과 복리후생에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제게 한 번 더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!

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!

2020년 3월 19일

성명 : 김 경 자 (인)

